

유아가 인식하는 부정적 정서와 반응

Young Children's Perceptions and Responses to Negative Emotions

정 윤 희*

Jeong, Youn Hee

김 희 진**

Kim, Heejin

Abstract

In this study, the perceptions and responses of 136 kindergarten children from middle SES families were recorded in one-to-one interviews about the cause, reasons for expression, and responses to negative emotions. Results showed that children perceived the causes of anger and sadness as 'interpersonal events' and they perceived the cause of fear to be 'fantasy/scary events'. The children tended not to express their negative emotions because they expected negative responses from their peers and mothers, but when they did, they expressed their negative emotions to their mothers rather than to peers. Children responded to the negative emotions of their peers with 'problem-solving focused strategies', but they responded to their mothers' negative emotions with passive strategies, such as 'emotion focused response' and 'avoidance'.

Key Words : 유아의 정서(children's emotions), 부정적 정서(negative emotions), 정서의 이해(understanding of emotions), 정서의 표현(expression of emotions), 정서에 대한 반응(responses to emotions)

* 접수 2002년 2월 8일, 채택 2002년 2월 23일

* 경북전문대 유아교육과 강사, E-mail : youneej@hanmail.net

**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유아교육과 부교수

I. 서론

유아들은 매일의 일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정서를 경험하고, 이해하고, 표현하게 된다. 유아가 경험하는 정서에는 기쁨, 행복함, 즐거움 등의 긍정적인 정서도 있지만 분노, 두려움, 슬픔, 혐오 등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도 있다. 긍정적인 정서는 유아에게 안정된 느낌을 주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타인에게 쉽게 수용되어진다. 반면, 부정적 정서는 유아에게 언짢은 느낌을 주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타인에 의해 거부되어지기 쉽다(김희정, 1994). 따라서 부정적 정서는 발달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인식되어져 왔다(Hyson, 1998).

주관적이고 내적인 상태로 정서를 인식하던 과거의 관점에서 사회적 관점과 기능적 관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나면서 부정적 정서도 유아의 발달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첫 번째 관점에서는 부정적 정서가 정서의 사회화에 중요한 맥락을 제공한다고 강조하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부정적 정서를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다(Eisenberg, Fabes, & Murphy, 1996). 두 번째 관점에서는 정서가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안내하고 조직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Campos, Mumme, Kermoian, & Campos, 1994; Izard, 1991; Lazarus, 1991). 따라서 이들은 정서를 개인의 의도와 사건간의 상호작용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각 정서에는 독특한 동기적 특성이 있어서 특정 유형의 행동을 동기화한다고 본다(Izard, 1991).

부정적 정서는 유아가 원하는 목표가 좌절되거나 성취될 수 없는 사회적 상황에서 발생

한다. 부정적 정서를 경험할 때 유아들은 나름대로의 적응체제를 활용하여 대처해 나가고 자신의 정서를 조절한다(LaFreniere, 2000). 그러므로 부정적 정서 역시 유아의 발달에 기여하며, 환경에의 적응을 돕는 역할을 한다.

현재까지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연구는 전반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부정적 정서가 연구된 경우도 긍정적 정서에 초점을 맞춘 연구에서 부수적인 요소로 취급되었을 뿐이다.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연구는 주로 부모의 대처반응과 유아의 정서·사회성 발달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 졌으며(강희연, 1998; Kliever, Fearnow, & Miller, 1996), 유아가 부정적 정서를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부정적 정서에 대한 유아의 전반적인 인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특히 유아가 인식하고 있는 부정적 정서의 원인과 표현 및 표현 이유, 부정적 정서에 대한 유아의 대처반응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정서의 원인에 대한 이해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초를 제공해주므로 초기 유아의 사회적 인식 및 발달에 기여한다(Denham, Zoller, & Couchoud, 1994). 정서에 대한 이해가 발달하면서 유아들은 점차적으로 정서가 일어나는 사건과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정서의 원인이 되는 사건을 분석할 수 있게 된다(Denham et al., 1994). 특히 정서의 원인에 대한 이해는 자신과 타인의 정서 상태와 정서경험의 결과를 분석하는 기초를 제공하며, 정서적인 반응과 행동을 결정하는 동기를 부여하게 되므로 정서 원인에 대한 유아의 이해를 알아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Cassidy, Park, Butkovsky, & Braungart, 1992). 그러나 이제까지 유아의 정서

원인에 대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고(Dunn & Hughes, 1998; Levine, 1995), 국내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부정적 정서의 원인에 대한 유아의 인식을 알아볼 필요가 있으며, 유아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부정적 정서를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 유아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정서의 표현은 사회적 관계를 만들거나 유지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Izard, 1991; Zeman & Garber, 1996). 유아들은 사회적 맥락 안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정서적 표현을 해석하고 평가하며, 사회에서 인정되는 방법으로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고 조절하게 된다(Casey & Feller, 1994; Saarni, 1990). 최근 부정적 정서의 표현이 정서의 사회화 맥락을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연구되고 있는데, 주로 유아의 부정적 정서 표현에 대한 부모의 대처 반응과 유아의 정서·사회성 발달과의 관계가 연구되었다. 연구결과는 부모가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수용적으로 반응해줄수록 유아의 정서조절과 사회적 유능감 그리고 또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희연, 1998; Eisenberg & Fabes, 1994; Fabes, Leonard, Kupanoff, & Martin, 2001).

그러나 유아의 시각에서 부정적 정서의 표현 및 표현 이유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며, 주로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Zeman & Gerber, 1996; Zeman & Shipman, 1996). 유아의 관점에서 부정적 정서의 표현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 것은 사회적 맥락 속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유아의 정서표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부정적 정서의 표현에 대한 유아의 인식을 알아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며, 국내에서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를 통해 부정적 정서의 표현과 표현을 결정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셋째, 부정적 정서에 대한 반응은 스트레스나 갈등상황에서 부정적인 정서를 조절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는데 영향을 주므로, 사회적 유능감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Murphy & Eisenberg, 1996). 유아의 대처 반응에 관한 연구들은 대체로 유아의 대처 반응과 정서·사회성 발달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거나, 부모의 부정적 정서 표현이 유아의 대처 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두고 있다(강희연, 1998; Fabes & Eisenberg, 1992; Rocker, Dubow, & Donaldson, 1996). 아울러 타인이 부정적 정서를 나타내는 상황에서 유아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연구하고 있는데, 주로 유아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는 부모와 또래와의 관계 속에서 다루어지고 있다(Berzweig, Eisenberg, & Fabes, 1993; Creasey, Mitts, & Catanzaro, 1995).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부모와 또래에 대한 유아의 대처전략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신현숙, 1999; Creasey Ottlinger, DeVico, Murray, Harvey, & Hesson-McInnis, 1997). 이는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에 따라 유아의 대처전략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사회적인 맥락 안에서 대처전략을 연구하는 것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부모나 또래를 분리해서 연구하였기 때문에 유아와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는 어머니와 또래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유아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동시에 연구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인 정서에 대한 유아의 전반적인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부정적 정서의 원인과 표현 및 표현 이유 그리고 대처반응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유아의 정서발달에 있어 중요한 사회화의 요인으로 어머니와 또래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어머니와 또래와의 관계 속에서 유아가 부정적인 정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아

래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부정적 정서의 원인에 대한 유아의 인식은 어떠한가?
2. 부정적 정서에 대한 유아의 표현 및 표현 이유는 어떠한가?
3. 타인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유아의 대처 반응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에 소재한 3개의 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는 만 5세 유아 136명이였다. 유아들의 평균연령은 만 6년 5개월이었으며, 남녀 비율은 남아가 70명(51.5%), 여아가 66명(48.5%)으로 거의 비슷하였다. 연구 대상 유아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은 중류이상이었다.

2. 연구도구

1) 부정적 정서의 원인에 대한 인식

부정적 정서의 원인에 대한 유아들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하여 Dunn과 Hughes(1998)가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행복함, 분노, 슬픔, 두려움의 네 가지 정서의 원인을 알아보는 도구였으나 연구목적에 따라 행복함에 관한 질문은 제외하였다.

부정적 정서의 원인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부정적 정서를 나타내는 세 가지 얼굴 표정-화난 얼굴, 슬픈 얼굴, 두려움에 차있는 얼굴-이 그려있는 그림을 유아에게 보여주면서 유아 자신, 친구 그리고 어머니에게 부정적 정서를 일으키는 상황에 대해 개방적으로 질문하

였다. 남아에게는 남아의 얼굴표정 그림을, 여아에게는 여아의 얼굴표정 그림을 보여주었다. 얼굴표정의 그림은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일러스트를 배우고 있는 학생에 의해 제작되었다. 제작된 그림도구는 유아교육 전문가 2인에게 그 적절성을 검증 받았다.

분노의 경우를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유아들에게 세 가지 얼굴표정 중 화난 표정의 그림을 찾아보도록 하였다. 모든 유아들이 부정적 정서를 나타내는 얼굴표정을 맞게 변별하였다. 다음으로 “너는 어떨 때, 이렇게 화가 나니?”, “친구는 어떨 때, 이렇게 화가 나는 것 같니?”, “엄마는 어떨 때 이렇게 화가 나시는 것 같니?” 라고 질문하였다. 위와 같은 개방적 질문에 대한 유아들의 반응은 그대로 기록되었다.

부정적 정서의 원인에 대한 범주는 Dunn과 Hughes(1998)의 범주에서 긍정적인 정서에 해당되는 범주를 제외하고 사용하였다. 부정적 정서에 대한 범주의 정의와 예는 다음의 <표-1>과 같다.

- 2) 부정적 정서에 대한 표현과 표현 이유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표현여부와 그

<표-1> 부정적 정서의 원인에 대한 범주

| 범 주 | | 정 의 | 예 |
|-----------|------------------------------------|--|----------------------------|
| 상호관계적 사건 | 통제/갈등 | 타인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나 타인의 행위를 통제하려는 사건 | 동생이랑 장난감 가지고 서로 싸울 때 |
| | 신체적 공격 | 신체에 직접적으로 공격을 가하거나 물건을 이용해 공격을 가하는 사건 | 친구가 때리거나 장난감을 던질 때 |
| | 손실/거절 | 타인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손실이나 타인에게 따돌림이나 거절을 받는 사건 | 친구가 이사갔을 때/친구들이 나랑 안 놀아줄 때 |
| | 일반적 사건 | 그밖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다른 사람의 존재에 의해 일어나는 사건 | 엄마가 집에 없을 때 |
| 외부적 사건 | 사고/부상 | 외부적으로 일어나는 사고나 신체적인 부상을 당하는 사건 | 넘어져서 다쳤을 때/아파서 입원했을 때 |
| | 분실/손실 | 타인과 관계없이 자신의 소유물을 잃어버리거나 손실되는 사건 | 물건을 깨뜨리거나 잃어버렸을 때 |
| | 그 외 | 그밖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사건 | 퍼즐이 잘 맞춰지지 않을 때/영화를 볼 때 |
| 공상/무서운 사건 | 정신 무관련 | 무서운 사건 중 유아의 공상적인 사고나 정신상태와 관련되지 않은 사건 | 무서운 개가 쫓아올 때/천등과 번개가 칠 때 |
| | 정신 관련 | 공상적이고 마술적인 유아의 사고나 정신과 직접 관련된 사건 | 귀신이 나타날 때/무서운 꿈을 꿔올 때 |
| 기 타 | 직접적인 원인이나 상황의 표현 없이 행동적인 용어만을 말할 때 | 엄마가 올 때 슬퍼요 | |
| 부 인 |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정서를 부인하는 상태 | 엄마는 무서워한 적 한번도 없었어요 | |
| 모름(무응답) | 유아들이 모른다고 하거나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하는 경우 | 모르겠어요 또는 생각 안나요 | |

이유를 알아보기 위하여 Zeman과 Garber(1996)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래의 도구는 시나리오 상황의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가상의 상황을 설정한 시나리오 없이 실생활을 토대로 하여 질문하였다. 즉, 부정적 정서를 경험할 때 자신이 느끼는 정서를 친구와 어머니에게 표현할 지의 여부와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이유에 대해 질문하였다. 질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너는 화가 날 때, 엄마(친구)에게

화가 났다는 것을 보여 줄거니 아니면 안 보여 줄 거니?” 유아가 보여줄 것이라고 대답한 경우에는 “왜 엄마(친구)에게 보여줄 거니?”라고 질문하였고, 보여주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한 경우에는 “왜 엄마(친구)에게 안 보여줄거니?”라고 질문하였다.

표현의 이유에 대한 범주는 Zeman과 Garber(1996)의 범주를 사용하였으며 그 정의와 예는 다음의 <표-2>와 같다

〈표-2〉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표현 이유의 범주

| 범 주 | 정 의 | 예 |
|---------------|---|---------------------------------|
| 상호 관계적 긍정적 자아 | 정서를 표현하는 결과로서 상대방으로부터 동정, 이해, 공감 받을 것을 예상하여 정서를 표현하려는 결정. 즉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 타인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결과가 될 것이라는 인식에 기초함 | 엄마가 기분 좋아지게 해주니까요/ 친구가 달래주니까요 |
| 상호 관계적 부정적 자아 | 정서를 표현하는 결과로서 상대방으로 비웃음이나 비난, 창피를 받을 것을 예상하여 정서를 표현하지 않으려는 결정. 즉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 타인과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의 결과가 될 것이라는 인식에 기초함 | 엄마가 화내니까/ 친구가 놀릴까봐 |
| 상호 관계적 부정적 타인 | 상대방의 기분을 배려하기 위해 정서를 표현하지 않으려는 결정으로 유아의 친사회적 성향에 기초함 | 엄마도 기분 나빠지니까/ 친구가 속상해 할까봐 |
| 도구적 긍정 | 정서를 표현하는 결과로서 긍정적인 도움이나 유익을 받을 것을 예상하여 정서를 표현하려는 결정 | 엄마가 잃어버린 것을 찾아주니까/ 무서운 것을 쫓아주니까 |
| 도구적 부정 | 정서를 표현하는 결과로서 부정적인 결과(비 상호관계적인)를 예상하여 정서를 표현하거나 표현하지 않으려는 결정 | 말하면 다시는 친구 집에 못 가게 하니까 |
| 정서의 비통제 | 자신이 정서를 통제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인식 하에 정서를 표현하려는 결정 | 참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눈물이 나오니까 |
| 정서의 최소화 | 문제를 최소화하여 표현하지 않으려는 결정 | 아무 것도 아니니까/ 별로 안 무서우니까 |

〈표-3〉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반응의 범주

| 범 주 | 정 의 | 예 | |
|-----------|-------------------------------|---|---------------------|
| 공격적 반응 | 정서표현에 대해 신체적 또는 언어적으로 공격하는 반응 | 때린다/ 괴롭힌다 | |
| 문제 해결적 반응 | 구체적 문제해결 | 정서표현의 원인이 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해주거나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반응 | 물건을 찾아준다/ 강아지를 쫓아준다 |
| | 일반적 문제해결 | 정서표현의 원인이 되는 문제에 대해 구체적이기보다는 일반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반응 | 도와준다/ 사이좋게 지낸다 |
| | 사회적 지지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타인의 도움이나 지지를 요청하는 반응 | 선생님에게 이른다 /엄마에게 이른다 |
| 정서 중심적 반응 | 타인중심 정서표현 | 정서표현에 대해 공감, 격려, 위로 등 기분이 좋아지도록 정서적으로 반응 | 위로해준다/ 눈물 닦아준다 |
| | 단순 정서표현 | 타인의 정서표현에 대해 자신이 느낀 정서를 표현하는 반응 | 같이 운다/ 함께 무서워한다 |
| 회피적 반응 |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거나 방관하는 태도를 보이는 반응 | 잠잔다/ 가만히 놔둔다 | |

3) 부정적 정서에 대한 대처반응
 타인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유아의 대처반응을 알아보기 위하여 Murphy와 Eisenberg

(1996)의 도구와 Causey와 Dubow(1992)의 도구를 기초로 범주화하였다. 대처반응에 대한 질문은 친구나 어머니가 분노, 슬픔 그리고 두려움을

표현할 때 유아가 어떠한 반응을 보일 지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만약에 친구(엄마)가 화가 나 있으면, 너는 어떻게 할거니?”라고 질문한다. 대처반응에 대한 범주의 정의와 예는 다음의 <표-3>과 같다.

3. 연구절차

1) 예비연구

본 연구를 시행하기에 앞서 연구도구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2001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시내에 위치한 어린이 집과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만 5세 유아 18명을 대상으로 예비연구를 하였다. 예비연구를 통해 질문 방법 및 질문순서, 그림도구의 적절성, 조사의 소요 시간 등을 점검하였으며, 질문의 방법과 순서를 구체화하였다.

2) 평정자 훈련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 외에 1명의 보조 평정자가 유아와의 인터뷰 및 자료의 분석과정에 참여하였다. 보조 평정자는 4년제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3년의 유치원 교사경력을 지닌 유아교육 석사학위 소지자이다. 평정자의 훈련에서는 질문의 유형과 분석 범주의 정의와 예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한 후, 6명의 자료를 함께 분석한 결과 일치율은 82%였다. 서로 일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논의하고 다시 기준을 세부적으로 확립하였다. 이 후 다시 10명의 자료를 토대로 각 범주마다 90%에 이를 때까지 연습하였다.

3) 본 연구

본 연구는 2001년 8월 27일부터 9월14일까지 서울시내에 위치한 유치원 3곳에서 만 5세 유아 136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연구자와

보조 평정자는 유아와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하여 대상 유치원의 각 교실에서 2일 동안 수업에 참여하였다.

부정적 정서에 대한 유아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각 유치원의 독립된 조용한 공간에서 유아와의 일대일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의 모든 내용은 녹음되었으며, 면접은 주로 유치원 일과 중 실내·외 자유선택활동 시간을 통해 이루어졌다.

먼저 유아에게 분노, 슬픔, 두려움을 나타내는 얼굴이 그려있는 그림카드 3개를 보여주고 “이 중에서 화가 나(슬퍼하고, 무서워하고)있는 친구는 누구인 것 같니?” 라고 질문하여 유아가 각 얼굴의 정서를 변별하도록 했다. 그 다음 화난 얼굴의 그림카드만을 보여주고 유아에게 질문을 하였다. 질문은 분노, 슬픔, 두려움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유아의 반응을 녹음한 후 전사하여 분석하였다. 평정자와 초기 10%의 자료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일치도는 94%였고 이후 50%의 자료를 분석한 후 다시 10%의 자료를 분석하여 비교한 결과 95.8%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정서의 원인이 94%, 정서표현의 이유가 96.4%, 정서의 반응이 97%의 일치도가 나타났다.

4. 자료분석

연구문제에 따른 자료 분석 방법을 살펴보면, 첫째 부정적 정서의 원인에 대한 유아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표현과 표현이유에 있어서 대상에 따라 유아의 정서표현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셋째,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반응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해석

1. 부정적 정서의 원인에 대한 유아의 인식

유아 자신, 친구 그리고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를 일으키게 하는 원인에 대한 유아의 인식은 <표-4>와 같다. 먼저 분노의 원인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유아들은 공통적으로 '상호관계적 사건'을 자신(91.2%), 친구(78.7%) 그리고 어머니(86.1%)의 분노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상호관계적 사건'의 하위범주에서는 자신과 친구의 분노를 일으키는 원인과 어머니의 분노를 일으키는 원인이 부분적으로 다르게 나타났다. 유아들은 자신과 친구의 분노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통제/갈등', '신체적공격', '손실/거절'의 세 가지 이유를 끌고루 언급하였으나, 어머니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원인으로서는 '통제/갈등(78.7%)'을 압도적으로 많이 언급하였다.

유아 자신과 친구의 분노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대답한 내용을 보면 '친구나 동생이랑 싸울 때(통제/갈등)', '엄마나 친구가 때릴 때(신체적공격)', '친구들이 안 놀아줄 때(손실/거절)' 등이 많았다. 어머니의 분노를 일으키는 원인으로서는 '내가 잘못했을 때(통제/갈등)', '엄마랑 아빠랑 싸울 실 때(통제/갈등)' 등의 내용이 많았다. 또한 분노의 원인에 대하여 '모른다'고 대답하거나 무응답의 경우도 있었는데

<표-4> 유아가 인식한 정서의 원인

빈도(%)

| 범 주 | 분 노 | | | 슬 품 | | | 두 려 움 | | |
|-----------|-----------|-----------|-----------|-----------|----------|----------|----------|----------|----------|
| | 자 신 | 친 구 | 어 머 니 | 자 신 | 친 구 | 어 머 니 | 자 신 | 친 구 | 어 머 니 |
| 상호관계적 사건 | | | | | | | | | |
| 통제/갈등 | 66(48.5) | 55(40.4) | 107(78.7) | 30(22.1) | 36(26.5) | 48(35.3) | 15(11.0) | 13(9.6) | 18(13.2) |
| 신체적 공격 | 39(28.7) | 33(24.3) | 5(3.7) | 36(26.5) | 39(28.7) | 6(4.4) | 12(8.9) | 9(6.6) | 1(0.7) |
| 손실/거절 | 19(14.0) | 19(14.0) | 3(2.2) | 30(22.1) | 20(14.7) | 10(7.4) | 0(0.0) | 0(0.0) | 2(1.5) |
| 일반적 상황 | 0(0.0) | 0(0.0) | 2(1.5) | 9(6.6) | 4(2.9) | 1(0.7) | 3(2.2) | 6(4.4) | 1(0.7) |
| 소 계 | 124(91.2) | 107(78.7) | 117(86.1) | 105(77.3) | 99(72.8) | 65(47.8) | 30(22.1) | 28(20.6) | 22(16.1) |
| 외부적 사건 | | | | | | | | | |
| 사고/부상 | 0(0.0) | 3(2.2) | 0(0.0) | 12(8.8) | 12(8.8) | 26(19.1) | 1(0.7) | 4(2.9) | 10(7.4) |
| 분실/손실 | 0(0.0) | 0(0.0) | 1(0.7) | 3(2.2) | 1(0.7) | 4(2.9) | 1(0.7) | 0(0.0) | 1(0.7) |
| 그 외 | 1(0.7) | 2(1.5) | 3(2.2) | 3(2.2) | 0(0.0) | 7(5.2) | 7(5.1) | 18(13.2) | 13(9.6) |
| 소 계 | 1(0.7) | 5(3.7) | 4(2.9) | 18(13.2) | 13(9.5) | 37(27.2) | 9(6.5) | 22(16.1) | 24(17.7) |
| 공상/무서운 사건 | | | | | | | | | |
| 정신무관련 | 0(0.0) | 0(0.0) | 0(0.0) | 0(0.0) | 2(1.5) | 1(0.7) | 53(39.0) | 30(22.1) | 28(20.6) |
| 정신관련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36(26.5) | 26(19.1) | 10(7.4) |
| 소 계 | 0(0.0) | 0(0.0) | 0(0.0) | 0(0.0) | 2(1.5) | 1(0.7) | 89(65.5) | 56(41.2) | 38(28.0) |
| 기타 | 1(0.7) | 0(0.0) | 1(0.7) | 1(0.7) | 2(1.5) | 3(2.2) | 0(0.0) | 1(0.7) | 0(0.0) |
| 부인 | 2(1.5) | 2(1.5) | 4(2.9) | 4(2.9) | 1(0.7) | 9(6.6) | 3(2.2) | 2(1.5) | 23(16.9) |
| 모름(무응답) | 8(5.9) | 22(16.1) | 10(7.4) | 8(5.9) | 19(14.0) | 21(15.5) | 5(3.7) | 27(19.9) | 29(21.3) |
| 총 계 | 136(100) | 136(100) | 136(100) | 136(100) | 136(100) | 136(100) | 136(100) | 136(100) | 136(100) |

유아자신과 어머니일 때보다는 친구일 때 두드러졌다.

둘째, 슬픔의 원인에 대한 유아의 인식을 알아본 결과, '상호관계적인 사건'이 자신, 친구, 엄마의 슬픔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었으며, '외부적 사건'도 빈번히 언급되었다. 분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아들은 '상호관계적 사건'의 하위범주에서 자신과 친구의 원인에 대해서는 비슷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나 어머니의 원인에 대해서는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다. 즉, 유아들은 자신과 친구의 슬픔 일으키는 원인으로 '통제/갈등', '신체적공격', '손실/거절'의 세 가지 이유를 골고루 언급하였으나, 어머니에게 슬픔을 일으키는 원인으로서는 '통제/갈등(35.3%)'을 비교적 많이 언급하였다.

그러나 분노와는 다른 경향도 관찰되었다. '손실/거절'의 원인이 분노에 비해 많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유아자신에게서 두드러졌다. 아울러 어머니에 대해서는 외부적 사건을 슬픔의 원인으로 많이 인식하고 있었는데, 특히 가족 구성원의 사고나 부상에 해당되는 내용을 많이 언급하였다. 슬픔의 원인에 대해 '모른다'고 대답한 유아들은 자신일 때보다는 친구나 어머니일 때 더 많이 나타났다.

셋째, 두려움의 원인에 대한 유아의 인식을 알아본 결과, 분노와 슬픔의 원인과는 달리 '공상/무서운 사건'을 자신, 친구, 그리고 어머니에게 주된 두려움의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공상/무서운 사건' 중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두려움의 원인으로서는 특히 '정신무관련'이 많이 언급되었다. 어머니에게는 '귀신이나 괴물, 악몽' 등의 공상적인 정신상태와 관련된 내용보다는 '도둑이나 나쁜 사람이 들어왔을 때', '무서운 영화를 봤을 때' 등의 좀 더 실제적인 원인이 두려움을 일으킨다고 유아들은 생

각하였다. 또한 어머니에 대해서는 '엄마가 무서워하는 것을 본적이 없다'고 부인하거나 '모른다' 라고 대답한 유아들이 분노와 슬픔에 비하여 두드러지게 많았다.

2. 부정적 정서에 대한 유아의 표현 및 표현 이유

1)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표현여부

유아가 부정적 정서를 느낄 때 친구와 어머니에게 자신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표현할 것 인지를 알아본 결과는 <표-5>과 같다.

<표-5> 친구와 어머니에 대한 유아의 부정적 정서의 표현 빈도(%)

| 표현횟수 \ 표현대상 | 친 구 | 어머니 |
|-------------|----------|----------|
| 0회 | 80(58.8) | 43(31.6) |
| 1회 | 33(24.3) | 41(30.1) |
| 2회 | 14(10.3) | 32(23.5) |
| 3회 | 9(6.6) | 20(14.7) |
| 계 | 136(100) | 136(100) |

$\chi^2_{(9)}=51.71, p < .05$

<표-5>와 같이 표현대상이 친구 또는 어머니인지에 따라 정서표현 여부가 유의미하게 차이($\chi^2_{(9)}=51.71, p < .05$)나, 친구보다는 어머니에게 더 많이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에게는 부정적 정서를 전혀 표현하지 않겠다는 유아가 과반수 이상(58.8%)이었으나 어머니에게는 과반수 이상(68.3%)의 유아가 표현을 하겠다고 대답하였다.

친구와 어머니에 대한 세 가지 정서의 표현 여부를 살펴 본 결과는 <표-6>과 같다. 전반적으로는 세 가지 정서 모두 친구와 어머니에게 표현하지 않겠다는 유아가 많았다. 그러나 표

〈표-6〉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표현 여부

빈도(%)

| 정서 및 표현대상 | 분 노 | | 슬 픔 | | 두 려 움 | |
|-------------|-----------------------------|----------|-----------------------------|----------|------------------------------|----------|
| | 친 구 | 어 머 니 | 친 구 | 어 머 니 | 친 구 | 어 머 니 |
| 여 부 | | | | | | |
| 표 현 함 | 40(29.4) | 37(27.2) | 23(16.9) | 52(38.2) | 30(22.1) | 72(52.9) |
| 표 현 안 함 | 96(70.6) | 98(72.1) | 113(83.1) | 84(61.8) | 105(77.2) | 64(47.1) |
| 모 름 | 0(0.0) | 1(0.7) | 0(0.0) | 0(0.0) | 1(0.7) | 0(0.0) |
| 계 | 136(100) | 136(100) | 136(100) | 136(100) | 136(100) | 136(100) |
| χ^2 검증 | $\chi^2_{(2)}=4.97, p> .05$ | | $\chi^2_{(2)}=6.00, p< .05$ | | $\chi^2_{(2)}=26.59, p< .05$ | |

현하겠다는 유아 중에서는 친구보다는 어머니에게 슬픔($\chi^2_{(2)}=6.00, p< .05$)과 두려움($\chi^2_{(2)}=26.59, p< .05$)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다.

2.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표현의 이유

유아가 부정적 정서 표현의 이유를 살펴본 결과는 <표-7>과 같다. 전반적으로는 부정적인 결과를 예상하여 친구에게는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지 않겠다는 유아가 많았으나, 어머니에 대해서는 부정적 정서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세 가지 정서 모두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도 많았다.

첫째, 유아들은 친구와 어머니에게 분노를 표현하면 상대방으로부터 비웃음이나 창피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얻는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즉, 유아들은 공통적으로 '상호관계적 부정적 자아' 원인을 들어 친구(24.3%)와 어머니(29.5%)에게 표현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친구가 안 놀아줄까봐요', '친구가 놀리니까요', '엄마가 화내니까요(혼내니까요)' 등의 이유로 표현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둘째, 유아가 슬픔을 느낄 때는 표현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다르게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에 대해서는 '상호관계적 부정적 자아(29.4%)'의 이유가 가장 많았으나 어머니에 대

〈표-7〉 정서 표현의 이유

빈도(%)

| 정서 및 표현대상 | 분 노 | | 슬 픔 | | 두 려 움 | |
|--------------|----------|----------|----------|----------|----------|----------|
| | 친 구 | 어 머 니 | 친 구 | 어 머 니 | 친 구 | 어 머 니 |
| 표현이유 | | | | | | |
| 상호관계적 긍정적 자아 | 5(3.7) | 6(4.4) | 5(3.7) | 5(3.7) | 5(3.7) | 6(4.4) |
| 상호관계적 부정적 자아 | 33(24.3) | 40(29.5) | 40(29.4) | 18(13.2) | 40(29.4) | 14(10.3) |
| 상호관계적 부정적 타인 | 10(7.4) | 12(8.8) | 13(9.6) | 26(19.1) | 13(9.6) | 9(6.6) |
| 도구적 긍정 | 8(5.9) | 8(5.9) | 4(2.9) | 16(11.8) | 11(8.1) | 29(21.3) |
| 도구적 부정 | 11(8.1) | 12(8.8) | 13(9.6) | 10(7.4) | 6(4.4) | 9(6.6) |
| 정서의 비통계 | 7(5.1) | 4(2.9) | 4(2.9) | 9(6.6) | 5(3.7) | 14(10.3) |
| 정서의 최소화 | 1(0.7) | 3(2.2) | 2(1.5) | 1(0.7) | 4(2.9) | 5(3.7) |
| 모름(무응답) | 61(44.8) | 51(37.5) | 55(40.4) | 51(37.5) | 52(38.2) | 50(36.8) |
| 총 계 | 136(100) | 136(100) | 136(100) | 136(100) | 136(100) | 136(100) |

해서는 '상호관계적 부정적 타인(19.1%)'의 이유가 가장 많았다. 즉, 친구에 대해서는 상대방으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예상하여 자신의 정서에 대해 표현하지 않겠다는 이유가 많았으나 어머니에 대해서는 상대방을 배려하여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서를 표현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유아가 두려움을 느낄 때도 표현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다르게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에 대해서는 역시 '상호관계적 부정적 자아(29.4%)'의 이유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나 어머니에 대해서는 '도구적 긍정(21.3%)'의 이유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즉, 친구에게는 비웃음이나 창피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예상하여 두려움을 표현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많았으나, 어머니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예상하여 두려움을 표현하려는 경향이 많았다.

3. 타인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대처반응

친구와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 표현에 대한 유아의 대처반응을 알아 본 결과는 <표-8>과 같다.

첫째, 유아들은 친구(50.7%)와 어머니(41.2%)가 분노를 표현할 때 '문제해결적인 반응'으로 대처하겠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정서 중심적 반응'도 빈번히 언급하였다. '문제해결적 반응' 범주 안에서는 구체적인 해결보다는 일반적인 해결의 내용이 더 많이 나타났다. '정서 중심적 반응' 범주 안에서는 단순정서표현 보다는 타인 중심적 정서표현이 많이 나타났다. '방으로 들어간다', '이불 뒤집어쓴다', '잠잔다' 등의 '회피적 반응'은 특히 어머니에게서 두드러졌다.

둘째, 유아들은 친구(39.7%)와 어머니(44.1%)

<표-8> 타인의 분노에 대한 유아의 대처반응

빈도(%)

| 반응 | 정서/정서 주체 | | 분 노 | | 슬 픔 | | 두 려움 | |
|------------|----------|----------|----------|----------|----------|----------|------|-----|
| | 친 구 | 어머니 | 친 구 | 어머니 | 친 구 | 어머니 | 친 구 | 어머니 |
| 공격적 반응 | 7(5.1) | 0(0.0) | 1(0.7) | 0(0.0) | 2(1.5) | 0(0.0) | | |
| 문제해결적 반응 | | | | | | | | |
| 구체적 문제해결 | 22(16.2) | 11(8.1) | 21(15.4) | 18(13.2) | 40(29.4) | 28(20.6) | | |
| 일반적 문제해결 | 43(31.6) | 44(32.4) | 25(18.4) | 19(14.0) | 24(17.6) | 24(17.6) | | |
| 사회적지지 문제해결 | 4(2.9) | 1(0.7) | 3(2.2) | 0(0.0) | 3(2.2) | 0(0.0) | | |
| 소 계 | 69(50.7) | 56(41.2) | 49(36.0) | 37(27.2) | 67(49.2) | 52(38.2) | | |
| 정서 중심적 반응 | | | | | | | | |
| 타인중심 정서표현 | 31(22.8) | 30(22.1) | 53(39.0) | 56(41.2) | 27(19.9) | 33(24.3) | | |
| 단순 정서표현 | 2(1.5) | 3(2.2) | 1(0.7) | 4(2.9) | 4(2.9) | 11(8.1) | | |
| 소 계 | 33(24.3) | 33(24.3) | 54(39.7) | 60(44.1) | 31(22.8) | 44(32.4) | | |
| 회피적 반응 | 8(5.9) | 21(15.4) | 9(6.7) | 11(8.1) | 8(5.9) | 8(5.9) | | |
| 모름(무응답) | 19(14.0) | 26(19.1) | 23(16.9) | 28(20.6) | 28(20.6) | 32(23.5) | | |
| 총 계 | 136(100) | 136(100) | 136(100) | 136(100) | 136(100) | 136(100) | | |

가 슬픔을 표현할 때, 분노의 경우와는 달리 '정서 중심적 반응'을 가장 많이 나타냈다. '정서 중심적 반응' 중에서는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는 타인중심 정서표현(예: '눈물을 닦아줘요' '기분을 좋게 해줘요')이 단순정서표현에 비해 많이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문제해결인 반응'이 많았는데 친구에게서 더 많이 나타났다.

셋째, 유아들은 친구(49.2%)와 어머니(38.2%)가 두려움을 표현할 때 '문제해결적 반응'으로 대처하겠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는데, 이런 경향은 특히 친구에게 두드러졌다. '정서 중심적 반응'도 빈번히 언급하였는데, 상대적으로 어머니에 대하여 더 많이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부정적 정서에 대한 유아의 전반적인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부정적 정서를 일으키는 원인, 부정적 정서에 대한 표현 및 표현 이유 그리고 부정적 정서에 대한 유아의 대처반응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부정적 정서의 원인에 대한 유아의 인식

첫째, 유아들은 '상호관계적 사건'을 분노와 슬픔의 원인으로, '공상/무서운 사건'을 두려움의 원인으로 가장 많이 인식하고 있었다. 유아들이 분노와 슬픔을 일으키는 원인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음은, 사회적인 맥락 안에서 이루어지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유아의 정서경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를 지지해주는 결과이다(Denham, Zoller, & Couchoud, 1994; Saarni, 1993). 또한 두려움의 원인으로는 '귀신'이나 '괴물' 같은 공상적이거나 무서운 사건이 많이 언급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Dunn과 Hughes(1998)의 연구와 일치하며, 유아의 마술적이고 공상적인 사고를 잘 반영해주고 있다.

각 범주 내에서의 차이를 살펴보면, 분노는

'상호관계적 사건' 중에서 '통제/갈등'이나 '신체적공격'과 관련된 사건이 원인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었으나, 슬픔은 '상호관계적 사건'의 하위범주인 '손실/거절'이나 '외부적 사건'의 하위범주인 '사고나 부상'에 관련된 사건이 원인으로 많이 언급되었다. 이것은 유아들이 분노와 슬픔의 원인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즉, 분노는 타인에 의해 해를 입거나 목적이 방해받을 때 느껴지는 정서로서, 통제할 수 있는 상황과 연관되어진다. 반면, 슬픔은 따돌림과 이별 같은 대인관계에서의 손실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외부에 의해 피해가 일어날 때 느껴지는 정서이다(Ellsworth, & Smith, 1988; Levine, 1995). 이런 결과를 볼 때 유아들은 분노, 슬픔, 두려움의 정서를 잘 구별하고 있었으며, 분노와 슬픔의 미묘한 차이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유아들은 자신과 친구에 대한 부정적 정서의 원인은 유사하게 인식하였으나 어머니에 대해서는 다르게 인식하였는데, 이런 결과는 Dunn과 Hughes(1998)의 연구와 일치한다. 유아들은 자신과 친구가 느끼는 분노와 슬픔에 대해서는 '신체적공격'이나 '손실/거절'을, 두려움에 대해서는 '정신관련 사건'을 원인으로 많

이 언급하였다. 반면, 유아들은 어머니가 느끼는 분노에 대해서는 '통제/갈등'을, 슬픔에 대해서는 '사고/부상'을, 그리고 두려움에 대해서는 '정신 무관한 사건'을 원인으로 많이 언급하였다. 이런 결과는 유아들의 인지적·정서적 경험을 반영한 결과이다. 두려움의 경우를 예로 들면, 유아들은 자신과 친구에 대해서는 '귀신이나 괴물', '무서운 꿈'과 같이 공상적인 사고를 나타내는 사건을 많이 언급하였으나, 어머니에 대해서는 '무서운 영화를 봤을 때'나 '도둑이 들어왔을 때'와 같이 실제적인 상황을 많이 언급하였다. 즉, 유아들은 자신과 친구가 비슷한 또래로 동질적인 경험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반면, 어머니는 자신들과는 다른 성인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셋째, 유아들이 부정적 정서의 원인에 대해 '모른다'고 하거나 정서적 경험을 부인하는 경향도 있었는데, 자신보다는 친구나 어머니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이는 자신의 정서에 대한 이해가 타인의 정서에 대한 이해보다는 발달상 먼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Denham, 1986; Harris, 1993).

2. 부정적 정서에 대한 유아의 표현 및 표현 이유

먼저 부정적 정서의 표현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자신이 느끼는 부정적 정서를 표현하지 않겠다는 유아들이 더 많았지만, 표현할 경우에는 친구보다는 어머니에게 표현하겠다는 경향이 더 많았다. 이것은 선행연구와 일치된 결과(Zeman & Shipman, 1996; Zeman et al., 1997)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는 또래보다 어머니와의 관계가 정서적으로 더 친밀하므로, 어머니로부터 수용적인 반응을 예상해

서 유아들이 어머니에게 부정적 정서를 표현하려고 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둘째는 부정적 정서표현이 특히 또래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또래에게 부정적 정서를 표현하는 것을 더 많이 자제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다(Zeman & Shipman, 1996).

구체적으로는 슬픔이나 두려움을 느낄 때보다 분노를 느낄 때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이는 유아들이 타인에게 분노가 가장 잘 수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경험의 반복을 통해 분노는 표현하기보다 통제해야 되는 것으로 사회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Eisenberg, Fabes, & Murphy, 1996; Saarni, 1990).

다음으로 유아가 부정적 정서의 표현 여부를 결정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본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유아들은 친구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예상해서 표현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였으며, 어머니에 대해서도 부정적 정서의 종류에 따라 표현의 이유를 다르게 응답하였다. 이는 선행연구와 일치되는 결과이며 부정적인 정서가 어머니보다는 친구에게 더 수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유아의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Zeman & Shipman, 1996).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아들은 '상호관계적 부정적 자아'의 이유를 들어 친구와 어머니 모두에게 분노를 표현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였다. 유아들은 '친구가 안 놀아주니까요' 또는 '엄마가 혼내니까요' 등의 비웃음, 창피, 처벌 등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예상하여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지 않으려는 결정을 하였다.

유아들이 슬픔과 두려움을 느낄 때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표현여부를 결정하는 이유가 달라졌다. 유아들은 '상호관계적 부정적 자아'

의 이유를 들어 친구에게 슬픔과 두려움을 표현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였다. 예를 들면 슬픔에 대해서는 ‘친구가 울보라고 놀리니까요’의 이유를 들어, 두려움에 대해서는 ‘뭐가 무섭냐고 놀릴까봐요’의 이유를 들어 표현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유아들이 또래에게 부정적 정서가 잘 수용되지 않음을 이해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Zeman & Garber, 1996).

반면 유아들은 ‘상호관계적 부정적 타인’의 이유를 들어 슬픔을 표현하지 않거나 ‘도구적 긍정’의 이유를 들어 어머니에게 슬픔을 표현하겠다고 응답하였다. 두려움에 대해서는 ‘도구적 긍정’의 이유를 들어 어머니에게 표현하겠다고 응답하였다. 예를 들면, 슬픔에 대해서는 ‘엄마도 같이 슬퍼하니까요’의 이유를 들어 표현하지 않겠다고 하거나 ‘내가 슬플 때 안아 주니까요’라는 이유를 들어 표현하겠다고 하였다. 두려움에 대해서는 ‘무서운 것을 쫓아주니까요’의 이유를 들어 표현하겠다고 응답했다. 이런 결과로부터 유아들은 부모의 기분을 배려하여 슬픔을 표현하지 않거나, 부모에게 슬픔과 두려움을 표현해서 긍정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를 희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아가 또래보다는 어머니에게 친사회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어머니와 형성된 긴밀한 정서적 유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Creasey et al., 1997).

이상의 결과들을 통해 유아들은 자신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타인의 반응을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아들이 사회적인 맥락 안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정서적 반응을 해석하고 평가하여 자신의 정서 표현을 결정한다는 견해를 지지해주는 결과이다(Bugental et al., 1992).

3. 타인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유아의 대처 반응

친구와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유아의 대처반응을 살펴보면 분노와 두려움에 대해서는 ‘문제해결적 반응’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슬픔에 대해서는 ‘정서 중심적 반응’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 것은 유아들이 부정적 정서의 원인을 종류에 따라 다르게 인식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와 그에 따른 시사점과도 관련 있다. 유아들이 부정적 정서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는 것은 각 정서의 원인에 대한 변별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따라서 분노는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서, 슬픔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더 빈번히 일어난다는 것(Ellsworth, & Smith, 1988; Levine, 1995)을 고려하여 유아의 대처반응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 유아들은 분노를 통제 가능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문제해결적 반응을 많이 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유아들은 슬픔이 통제가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더 많이 일어난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정서적인 위로를 통해 타인의 슬픔에 대처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표현 대상에 따라 살펴보면, 친구에게는 좀 더 문제해결적으로 대처하며, 어머니에게는 좀 더 정서 중심으로 대처하거나 회피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는 유아들이 또래관계는 수평적으로 인식하여 자신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반응하는 반면, 어머니와의 관계는 수직적으로 인식하여 적극적으로이기보다는 소극적이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반응하려 한 것으로 해석된다(신현숙, 1999; Creasey et al., 1997). 예를 들면, ‘방에 들어간다’, ‘잠잔다’ 등의 회피적 반응은 어머니의 분

노에 대한 대처반응으로 많이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교육적 시사점이 있다. 첫째, 유아가 인식하는 부정적 정서의 원인을 살펴본 결과, 유아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부모나 친구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와 또래집단이 유아에게 의미 있는 정서적 경험을 제공하고, 정서의 사회화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사는 부모와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경험되는 부정적 정서가 유아의 사회·정서 발달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둘째, 부정적 정서의 표현 및 표현 이유에 대한 유아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유아들은 부정적 정서 표현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특히 분노의 감정에 대해서는 친구나 어머니로부터 비웃음이나 처벌과 같은 반응을 예상하는 경우가 많았다. 부정적인 정서 표현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많이 경험할 수록 유아의 정서조절과 사회적 유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 결과들을 고려해 볼 때, 유아의 부정적 정서의 표현에 대해 좀 더 공감적이고 수용적으로 반응해주는 태도가 요구되어진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친구와 어머니가 보이는 부정적 정서에 대한 유아의 대처반응을 보면 공격적인 반

응보다는 문제해결적이거나 정서중심적인 반응과 같은 건설적인 방법으로 대처함을 알 수 있다. 즉, 유아에게 의미 있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어머니와 친구에 대해 유아가 감정 이입적이고 친사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가정과 유아교육 현장에서는 이러한 유아의 성향이 친밀한 관계로부터 잘 발휘되고 촉진되어질 수 있도록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회와 분위기를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끝으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유아와의 인터뷰에 의한 자기보고 형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아의 인식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졌다. 따라서 유아의 실제생활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관찰을 토대로 하여 유아의 부정적 정서를 일으키는 원인, 표현방식 그리고 대처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정서에 대한 유아의 인식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이 검토되지 못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유아의 부정적 정서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유아의 기질, 성별, 그리고 부모의 신념 및 태도 등의 요인과 관련하여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강희연(1998).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유형, 유아의 대처반응 및 또래수용간의 관계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희정(1994). 어머니가 지각한 부정적 정서에 대한 아동의 대처반응.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신현숙(1999). 부모와 또래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유

- 아의 정서반응과 대처전략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Berzweig, J., Eisenberg, N., & Fabes, R. (1993). Children's coping in self- and other-relevant contexts.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55, 208-226.
- Bugental, B., Blue, J., Cortez, V., Fleck, K., & Rodriguez, A. (1992). Influence of witnessed affect on information processing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63, 774-786.
- Campos, J., Mumme, D., Kermoian, R., & Campos, R. (1994). A functionalist perspective on the nature of emotion. In N. Fox (Ed.).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 Biological and behavioral consideration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2/3, Serial No. 240).
- Casey, J., & Fuller, L. (1994). Maternal regulation of children's emotions. *Journal of Nonverbal Behavior*, 18, 57-89.
- Cassidy, J., Parke, D., Butkovsky, L., & Braungart, M. (1992). Family-peer connections : The roles of emotional expressiveness within the family and children's understanding of emotions. *Child Development*, 63, 603-618.
- Causey, D., & Dubow, E. (1992). Development of a self-report coping measure for elementary school children.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 47-59.
- Creasey, G., Ottlinger, K., DeVico, K., Murray, T., Harvey, A., & Hesson-McInnis, M. (1997). Children's affective responses, cognitive appraisals, and coping strategies in responses to the negative affect of parents and peers.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67, 39-56.
- Denham, A. (1986). Social cognition, prosocial behavior, and emotions in preschoolers : Contextual validation. *Child Development*, 57, 194-201.
- Denham, A., & Zoller, D. (1990). "When my hamster died, I cried" : Preschoolers' attributions of the causes of emotions.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5(3), 371-373.
- Denham, A., Zoller, D., & Couchoud, A. (1994). Socialization of preschooler's emotion understand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0(6), 928-936.
- Dunn, J., & Hughes, C. (1998). Young children's understanding of emotions within close relationships. *Cognition and Emotion*, 12(2), 171-190.
- Eisenberg, N., Fabes, A., & Murphy, C. (1996). Parent'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 Relations to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comforting behavior. *Child Development*, 67, 2227-2247.
- Ellsworth, C., & Smith, A. (1988). From appraisal to emotion : Differences among unpleasant feelings. *Motivation and Emotion*, 12, 271-302.
- Fabes, A., Leonard, A., Kupanoff, K., & Martin L. (2001). Parental 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 Emotional and social responding. *Child Development*, 72(3), 907-920.
- Harris, L. (1993). Understanding emotion. In L. Lewis & M. Haviland(Eds.). *Handbook of emotion*(pp. 237-246). New York : Guilford press.
- Hyson, C. (1998). 유아를 위한 정서교육 : 정서 중심 교육과정의 구성. 정미라, 박경자, 배소연(공역).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원본발간일, 1994).
- Izard, E. (1991). *The psychology of emotions*. New York : Plenum.
- Kliewer, W., Fearnow, M., & Miller, P. (1996). Coping socialization in middle childhood : Tests of maternal and paternal influences. *Child Development*, 67, 2339-2357.
- LaFreniere, P. (2000). *Emotional Development : A biosocial perspective*. Belmont, CA : Wordsworth.
- Lazarus, R. (1991). *Emotion and adaptation*.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 Levine, L. (1995). Young children's understanding of the causes of anger and sadness. *Child Development*, 66, 697-709.
- Murphy, B., & Eisenberg, N. (1996). Provoked by a peer : Children's anger-related responses and their relations to social functioning. *Merrill- Palmer Quarterly*, 42(1), 103-124.
- Rocker, C., Dubow, F., & Donaldson, D. (1996). Cross-situational patterns in children's coping with observed interpersonal conflict.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5(3), 288-299.
- Saarni, C. (1990) Emotional Competence : How emotions and relationships become integrated. In R. Thompson(Ed.).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 Vol. 36. Socioemotional development* (pp. 115-182). Lincoln :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Saarni, C. (1993). Socialization of emotion. In M. Lewis & J. Haviland(Eds.). *Handbook of emotions*(pp. 435-446). New York : Guilford Press.
- Zeman, J., & Garber, J. (1996) Display rules for anger, sadness, and pain : It depends on who is watching. *Child Development*, 67, 957-973.
- Zeman, J., & Shipman, K. (1996). Children's expression of negative affect : Reasons and methods. *Developmental Psychology*, 32(5), 842-849.